

출판부가가치 통신망에의 요구와 기대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를 컴퓨터통신망으로 함께 잇는 출판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 추진을 위해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이 8월20일 발족했다.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일이나 과히 늦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쯤이 적절한 시기인지 모른다. 아직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DB형 여러 자료들은 기술적으로나 자료의 정리 아이디어에서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간 만들어졌던 막대한 양의 자료들이 순식간에 쓰레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류를 벗어나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출판부가가치통신망에 매우 기대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가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해두려 한다.

첫째로 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간에 있어 자료의 니드(need)가 같은 것이 아니라 는 문제가 있다. 출판사는 당연히 자신의 품목이 최고의 것임을 강조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서점은 어떤 책이든 잘 팔리도록 하는 목적 이외의 자료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은 어떤 작은 주제라도 포괄적인 문헌적 정리 속에 그중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해주는 분석적 입장이 되어야 한다.

독자는 어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막연한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도 선명한 안내역

할을 해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시범적인 모델조차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나가던 아이가 도서관에 들어와 그저 무엇인가 읽어보려고 했을 때,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연령·취미·성향까지 분별해서 책을 찾아주는 일이 곧 사서의 의무이다. 컴퓨터자료가 이런 일을 할 수 으려면 독자가 원하는 내용의 몇가지 주문을 종합해 자료를 골라내 줄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수준의 시소러스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런 여러 요구들이 출판자료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로 부딪칠 수 있다. 특히 그 내용에 대한 질적 감별에서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교류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교류되지 않을 때 각자의 자료는 차라리 따로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둘째, 컴퓨터 VAN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판매방법이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정상일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신간이든 구간이든 또는 고본서적이든 자료가 잘 정리된 DB는 당연히 독자와 직접 거래하는 홈쇼핑체제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 인터넷의 발전방향이고, 전세계 기업의 시장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출판사와 서점은 홈쇼핑체제에서 어떤 형식과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상당한 객관적 인식을 해야 한다. 또 한편

POS판매 프로그램은 공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책의 재고량은 서점에서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또한 DB 정보를 잘 읽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황 판단의 자료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관행상 실제 판매부수나 재고부수, 생산부수가 사실화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자료의 왜곡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른다.

셋째로, VAN 자체의 생산성은 무엇인가에 있다. 각자의 정보를 잘 PR해주는 일반하면 생산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컴퓨터 정보자료는 그 나름대로 자료의 읽기와 재구성을 통한 정보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정보의 제품이 있어야 VAN단위 체계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러나 질적으로 상승하려면 보다 선행된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장은 시시각각 광대무변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물량적 확대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던 시대는 벌써 끝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수요자의 니드에 앞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소프트웨어의 게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지면 쓰레기일 뿐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8호/1996년 9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사과문

동아출판서비스는 그동안 (주)두산동아의 상호 '동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두산동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8월 25일
정성훈

다국어맥편집서비스

영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스페인어

지금까지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협력업체가 필요하십니까?
저희 멀티피아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역 및 사진전자편집, 분해를 거쳐 난이도 높은 원색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Mac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멀티피아가 파트너가 되어보십시오. 만나는 순간 결코 후회없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옥편, 다국어사전, 한자관련서적 등 외국어 전문 맥편집 임력 서비스

번역·교열·감수·편집·교정·인쇄

멀티피아 T.267-5269 F.278-6441
 중구인현2가192-30신성B/D 405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_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리세기퍼블리싱
a publishing Co.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2-6호 2층
TEL (02)722-1273/4
FAX (02)738-8462
KPO BOX 1132, SEOUL, KOREA